

제게도 대구요양원 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한 겨울에도 푸르던 대구요양원



“올도 여긴 모른다. 저 기사양반한테 물어 보라”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 그리 수월치가 않다. 초행길에 강하
다고 땀에는 자신해왔건만 이번만은 그런 자신감도 들어맞지

않는 모양이다.

서울에선 아직까지 눈 구경을 못했는데, 대구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그 한쪽 들녘엔 녹지 않은 눈이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다. ‘일 때문만 아니라면...’ 방금 내린 싱싱한 눈이 아니더라도 역시나 눈은 그 자체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모양이다.

옆 자리에 앉은 다른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어 겨우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나 설명을 따라 도착한 논공가톨릭병원에는 치매 클리닉 외에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 시설은 없다. 신세지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측에 도움을 구해야 할 처지였다.

“사실은 원래 여기가 요양원이 들어서려고 했던 데가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결핵요양원은 안된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기 산 중턱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영풍한 곳에 온 모양이긴 했지만, 덕분에 마중 나온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이주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 자연과 만나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단 위쪽 산 중턱을 깎아 만들었지만, 제법 기운이 맑은 곳

에 위치했다는 생각이 든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을까, 뭐 그런 비슷한 유쾌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 곳이다. 요양원 분들의 얘기대로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건물을 뺀 두르고 있는 짙은 소나무와 삼림욕을 위해 '나름의 삼림욕장'을 만들어 환자들이 솔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는 요양원 사회복지사 유재명 씨의 얘기에 잠시 주변으로 시선을 옮겨본다. 이곳 환자들을 위해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요양원 사람들은 8명의 직원을 제외한 48명 전부가 깡마른 몸집에 약간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있다. 웬만한 피로에도 낮찍에 피곤한 기색이 드러나지 않는 기자의 얼굴색이 민망할 정도다. 40도 정도 고개를 아래로 기울이고 복도를 거닐지만 역시나 내 몸집과 표정은 그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미안한 마음이 깊이 자리한다.

주위 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들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90%정도가 결손가정이며, 외부에서 생활을 할 경우 규칙적인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서의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가정의 파괴로 인해 병이 악화된 경우도 있고, 결핵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경우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온전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결핵을 앓는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작년 11월에 부임해 1년 동안 요양원을 돌아다니는 조우호 원장은 주위환경으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이 큰 듯했다. 결핵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런 환경에 처한 이들에겐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행히 요양 생활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우지만, 사실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성생활 및 기타 생활에 통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처음 이곳 환자들을 대한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신경이 날카로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려는 마음이 더 단단해 보였다.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환자를 안아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같이 가주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남기며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녁 식사 후 휴게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환자들

식사 시간이 끝나자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요양원 생활을 통한 의지의 변화

“금남의 방에 머슴아가 왜 왔노?”

“가시나 하나 안왔노.”

여자 환자 휴게실에 누워있는 남자 환자에게 여직원이 농담을 던지자 그는 제법 그 가락에 장단을 잘 맞춘다. 결핵을 앓은지 15년이 됐다는 그는 벌써 두 번이나 결핵이 재발해 국립병원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런 까닭인지 결핵 전문가라도 된 듯 결핵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풀어놓는다. 누워있는 그 몸 마디마디는 가늘지만, “왜요?” 하며 대꾸하는 모습에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이 느껴진다. 너무 오래 계속적으로 결핵을 앓다보니 점점 더 힘이 들지만, 치료 자체는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라며 술, 담배 안하고 잡생각 안하고 나를 생각만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긴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처럼 잘 대해주고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사실 100% 만족하고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춰 생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지 예”

요양원에 와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결핵이나 합병증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면 맘이 안좋지만, 이곳에 와서 그간 잘 못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죽음 자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변화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 이곳 대구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은 결핵의 정도도 굉장히 심할 뿐 아니라 그외의 합병증까지 앓고 있다고 한다. 결핵과 너무 오랫동안 사귀어(?) 병만 키워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온 사람도 있고, 골다공증, 전신마비 등 다른 질환으로 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었다. 또 병이 낫는 다해도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환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곳 사람들 하나 하나의 맘씨엔 뜻밖이라 생각될 정도로, 인정이 그득했다.

요양원측의 의도처럼 공동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보듬는 법과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운 덕일까, 아님 암흑과 맞대해야 할 끄트머리에서 갓난아이처럼 이제 막 눈



요양원에서 내려다 본 주변 풍경

을 비비고 일어났기에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했기 때문일까.

요양원을 나서며

요양원의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쌀쌀했다. 말끔한 모습으로 식당에 줄을 서는 이들의 풍경이 살짝 성애가 낀 창밖에서 볼 때, 그 예상되는 따뜻함이 부러울 정도로 아침의 공기는 대단했다. 아픔을 같이 하기에 그 고통의 무게가 이제는 조금 덜 힘겨운 듯.

비록 자신의 집을 찾은 이에게 ‘어서오세요’라는 말을 하기에는 인색했지만, ‘또 오세요’라는 말로 뒤통지를 따뜻하게 하는 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기에 마음 한편이 뿌듯하다.

남들보다 그 하루 하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이들, 내 몸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자신보다 더 힘든 환자를 향해 두 손을 뻗어주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

글 · 홍미정(본지기자 smile@knta.or.kr)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613-1
전화 053-616-3111

▶대구요양원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966년 폐결핵 환자의 전문치료 및 요양과 자활을 목적으로 개원한 천주교대구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시설이다. 재단법인 「태린회」로 발족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1976년 김동한 신부가 요양원을 인수하면서 결핵환자 요양시설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김동한 신부는 자신이 결핵환자로 투병생활하며 목격한 결핵환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며, 중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 운영의 항구적 대책으로 후원회 〈밀알회〉를 발족하게 되어 현재까지 요양원 운영재원 일부를 후원하고 있다

▶대구요양원의 중점사업

하나, 의료사업

가톨릭 교회의 이념인 그리스도 사랑과 나눔의 정신에 따라 결핵환자 입원치료(전문의의 정기적인 검사, 판독, 처방 및 전문진료, 건강간사회를 위한 한의사회)의 한방진료를 통한 양한방 협단체제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둘, 보호사업

치료대상자와 치료시기를 놓친 난치성 환자, 생활이 곤란한 빈곤한 환자의 장기적인 요양보호(양질의 영양급식, 안정과 규칙적인 운동, 1인4실 이하 주거공간으로 개인생활권 확보, 자율적인 원내생활)

셋, 재활사업

퇴원 후 재발병의 방지와 적절한 사회생활로의 복귀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사회통합 훈련(종교생활용품 제작으로 판매수익금은 재활기금 조성, 주말 프로그램으로 문화환경에 능동적 참여, 심리적 자립과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

